

김용식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꽃의 이미지를 통한 생명력 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학과  
성채원

# 꽃의 이미지를 통한 생명력 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용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학과

성 채 원

# 인 준 서

성채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Me in nature" 라는 명제로 "석사 졸업 작품 평가를 위한 개인전"(2005년 4월 6일~12일, 가이아 갤러리)에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표현 형식을 분석한 것이다.

자연은 예로부터 생명의 인식체로서 인간의 끝없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생활의 터전이었으며 그 신비스러움과 장엄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자연과 더불어 상호 유기적 관계로 존재하며 내면에 생동하는 감각이나 상상력을 동원하여 예술 작품을 창조한다. 그래서 본인은 자연의 일부인 꽃을 통하여 생명력의 정서를 일깨우고, 꽃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자연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꽃의 객관적인 순수색으로 이루어져 추상적 표현을 혼재하여 표현 하였고, 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표현 하였다. 그리고 여성 작가인 오키프(Georgia O'keeffe)의 작품을 예로 들어 꽃의 표현세계를 살펴보았으며 본인 작품의 조형적 분석을 위하여 이미지와 색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자연물을 통한 꽃 이미지의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는 시도를 통해 더 무한한 표현 영역을 넓혀가고, 다가올 미래의 예술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자문해 본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작품의 형성 배경 .....	3
(1) 자연 이미지 변화 .....	3
(2) 생명성 .....	7
(3) 예술과 자연의 관계성 .....	9
2. 미적 대상으로의 꽃 .....	12
(1) 꽃의 의미 .....	12
(2) 꽃의 상징성과 사례 .....	14
(3) 꽃 이미지 표현 .....	17
(4) 본인과 꽃 - 자연 .....	18
3. 작품의 조형적 전개 .....	21
4. 작품 분석 .....	24
III. 결 론 .....	36
참 고 문 헌	
참 고 도 판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Me in Nature, 162.2 × 130.3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	24
[작품 2] Me in Nature, (24 × 30cm) × 2 ,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	26
[작품 3] Me in Nature, (22 × 16cm) × 7,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	27
[작품 4] Me in Nature, 130.3 × 89.4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	29
[작품 5] Me in Nature, 40.9 × 31.8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	30
[작품 6] Me in Nature, 90.9 × 72.7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	31
[작품 7] Me in Nature, 103.5 × 98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	32
[작품 8] Me in Nature, 90.9 × 72.7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	33
[작품 9] Me in Nature, (53×45.5cm) × 2,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	35

## 도판 목차

[도판 1] 오키프, Grey\_Line\_with\_blackblueandyellow, 388×630cm  
1923

[도판 2] 오키프, poppies, 226×275cm, 1950

[도판 3] 오키프, Blue-and-Green-Music, 618×750cm, 1919

[도판 4] 오키프, white\_iris, 462×550cm, 1926

## I. 서 론

자연은 인간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며 많은 창작의 끼리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자연 그 자체는 언제나 그대로 머무르는 듯 보이나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고 있다. 또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듯 하나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나며 순환해 나가고 있다. 예술가들은 이런 자연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이 체험한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해 왔다. 미의 창조가 감각과 상상력의 조화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본다면 개인의 체험은 미의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그려냄으로서 자신을 표현한다. 즉, 생활 속에서 갖게 되는 경험과 시각을 통해 작품에 시각언어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본인은 대학원 수업기간 (2000년9월~2003년6월)동안 자연의 일부인 꽃의 이미지를 통하여 삶에서 갖는 상실감이나 불안감을 극복하고 삶의 의지적 표현으로서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은 본인 작품에 투영된 내면세계를 인식하고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의식과 전개과정을 연구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논리적 서술을 통하여 예술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창작 활동에 있어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자연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상쾌한 공기, 점심때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과 저녁의 일몰에서 만끽할 수 있는 여유로움... 이 모든 게 자연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무심히 지나치다 정원의 만개한 꽃들과의 만남에서 갖게 되는 경이로움과 찬탄을 자아내는 탄성 등. 우리는 사소한 일상에서 자연의 신비로움으로부터 삶의 분주함에

서 여유를 갖게 되고 나아가 자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자연으로부터 받은 서정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본인 작품의 소재로서 꽃의 의미와 주제로서의 상징적 의미 등을 내용적 측면에서 연구 분석 하였다. 또한 조형적 표현에서 수반되는 공간과 형태, 색채와 표현 분석으로 연구방법을 설정 하였다.

이의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서 본론 1장에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자연에 대한 표현과 생명성을 논하였고 예술과 자연의 관계를 동·서양의 관점에서 비교 서술 하였다.

본론 2장에서는 꽃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낸 꽃의 일반론적 의미와 동·서양의 꽃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현대 미술의 대표적 여성 작가를 예로 들어 꽃의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또한 본인과 꽃의 관계에 대해 서술 하였다.

본론 3장에서는 본인 작품의 조형적 분석을 위하여 이미지와 색채에 대해 서술 하였고 작품 전개 과정에 대하여 논하였다.

끝으로 본론 4장에서는 본인의 작품 분석으로 자연을 바라봄에 있어서 꽃을 소재로 한 추상과 구상의 조화를 재현적 화법으로 표현함에 있어 향후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의 형성 배경

#### (1) 자연 이미지의 변화

인간들은 땅, 물, 나무, 하늘, 등 자연이 없는 삶은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다.

현대의 기계주의 물질문명은 자연의 파괴와 함께 인간존엄의 상실을 가져왔고, 현대인들의 획일화 된 삶은 인간성에 대한 상실과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박탈감과 상실성은 인간의 내면에 다양한 심리변화와 갈등을 갖게 하여 주체에 대한 의구심과 인간 존재의 근원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각은 작가들에게 존재의 근원적 형상으로서의 유기체인 자연에 대한 생명성의 인식을 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회화 자율의 생명력을 표현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자연은 예로부터 생명의 인식체로서 인간의 끝없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 신비스러움과 장엄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늘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했다. 이미지는 새롭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으로서 표현의 주체와 객체의 상관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자연과 인간관계는 상생의 구조를 갖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를 이미지화 시킨다.

모든 이미지는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을 구체화한다. 사진도 그러하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기록이 아니다.

사진 작품은 사진작가가 무한한 광경에서 그 장면을 선택하여 구체화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가족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사진작가의 사물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대상의 선택에 의한 반영이며, 화가의 견해는 그의 표현의 의도에 의해 재구성된다. 표현되어진 모든 이미지는 사물을 보는 방법을 구체화 하고, 그 이미지에 관한 판단이나 시각은 우리들 자신의 체험에 의존하고 있다. 작품의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풍부할수록 우리는 보다 깊게 예술가의 시각적인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가 예술작품으로서 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견해를 예술에 관하여 배운 갖가지 선입관-미·진리·문명·형태·지위·기호 등등-에 의하여 영향 받을 우려가 있다.<sup>1)</sup>

미술사를 연구하는 케네스 클락(Kenneth Clark)은 《풍경화론》에서 중세의〈상징으로서의 풍경〉에서 시작하여 〈사실로서의 풍경〉, 〈이상으로서의 풍경〉, 〈있는 그대로의 풍경〉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세기에 회화에서 자연풍경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였고, 인상파의 빛에서 세간의 형태에 이르는 19세기 후반 풍경화의 변모 가운데서 종래의 회화형식이 사라져가는 경과도 나타내고 있다.

풍경화란 19세기의 특유한 창조예술이었다. 〈풍경의 새로움에 대하여〉라고 러스킨(John Ruskin)<sup>2)</sup>이 말한 것처럼 19세기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몸에 익혔으며, 풍경화는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회화의 지배적인 한 장르로 형성되었다. 19세기 사람의 풍경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사회 환경의 인공화에 따른 자연으로부터의 격리감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자연의 충실한 묘사에 철저를 기하는 풍경회화는 다른 모든 예술형식에도 나타나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유발 시켰다.

멈퍼드(Lewis Mumford)<sup>3)</sup>에 의하면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인간

1) 존. 버거, 『이미지』 1996.12, p.28~29

2) John Ruskin, (1819.2.8~1900.1.20), 영국의 작가·비평가·예술가

3) Lewis Mumford, (1895~1985), 미국 문명·사회평론가.

롱아일랜드 출생. 1923년경 미국 지역계획 협회를 설립하여 그 이론 보급에 힘씀.

은 결국, 눈에 보이는 자연의 표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 스스로 느낀 이미지와 감정, 내면세계로 자연을 동화 시킨 후, 그것을 다시 밖으로 유출하는 수단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자연의 유동적 형태와 상호 연관된 환경을 내면의 표상을 통해 근원적인 생명의 이미지로 환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인에게 있어 자연의 모습은 아련한 추억 속으로 들어가 회상에 잠기게도 하고, 자연의 무궁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되새겨 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연이 본인작품의 모티브(motive)로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자연의 순환원리가 미적 발상의 근원이 되었으며, 그 속에서 느꼈던 야릇한 흥분과 감동,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 등을 상징적 의미를 갖고 구체적 표현을 통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내면의 심상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해석 방법으로 재구성된 형상의 세계를 나타내 보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자 융(K. Jung)은 “예술이란 상징이다. 작가가 경험하는 것, 지각하는 것, 느낀 것, 생각하는 것을 상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인에게 있어서 자연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통해 느낀 것들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발점은 생산의 근원이며 끝없는 포용력을 내포하고 있는 자연 세계로부터 삼았다.

특히 조감적 시각으로 음미해 온 자연풍경에서도 꽃과, 나무, 나뭇잎을 통하여 자연에서 갖게 되는 서정적 감흥과 자연현상으로부터 받은 외경심과 동경, 그리고 자연과 일체가 되어 느꼈던 즐거움, 흥분 등의 자연미를 함축성 있게 형상화 하고 자 하였다.

---

제야의 입장에서 근대문명을 비판하는 평론활동을 함. 도시의 예술성, 건축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논평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음. 저서 『유토피아의 계보』(1992), 『도시의 문화』(1938), 『역사의 도시- 내일의 도시』(1961)

본인의 작품은 자연의 일부인 꽃과 나뭇잎을 통하여 자연의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식물로서의 꽃이 모든 생명력이 결집된 결정체로서 완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기인한다. 즉 꽃의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력의 정서를 일깨우고 나아가 인간생명과 깊은 내적 연관성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이다.

시시각각으로 끝없이 생성과 소멸이 순환되어지는 자연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삶의 변화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속에서 야기되는 변화가 늘 낯선 것은 자연에 순응 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에 기인된 현실적 당혹감 때문이다.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할 자연의 순리임에도 이를 극복 하고자하는 의지 때문이다.

자연 세계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한다. 그러나 분과 초로 계속해서 극한까지 나뉘지는 시간과는 다르다. 자연의 순환적 시간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속도는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시간 인식은 인간 삶에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본인에게 비취지는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침묵의 세계가 아니다. 자연 속의 모든 존재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죽어 가는 변화무쌍한 세계로서 끊임없이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이다. 자연은 우리 앞에 ‘앞서 놓여있는 것’으로 그 속에서 갖는 시간 경험이 인간의 내면적 인식으로 전이 될 때 생기는 떨림에 주목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경험하는 돌발적인 사건의 순간은 자연의 무한한 세계에 감추어졌던 존재가 드러나는 시간이다. 확연한 실체로서 드러나기보다는 코끝이나 귀밑에서 스쳐지나가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코드(code)화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 속에 감춰져있던 것이 드러나는 실체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자연이미지의 상징으로서 본인은 꽃의 이미지를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 작품 속의 자연 이미지는 “천지는 나와 함께 살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sup>4)</sup> 라는 노장 사상의 생태학적 세계관-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깊이 결부시켜 파악하는 관점, 이른 바 ‘생태적 지혜’라고도 말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생태학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자연과의 공생과 화해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 대상에 대한 지속적 탐구와 자신의 시각으로 자연에 있는 본질의 파악을 통하여 단순한 재현적 측면에서의 모방이 아니라 대상의 내적 가치의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 (2) 생명성

생명은 우주 전체에서 불가분적인 하나의 연속인 것이며, 유기체에서 본질적 특징을 부여하고 외부적인 힘에 대항해 그것을 유지시키는 ‘어떤 모호한 힘’이다.

자연 대상의 외형 뒤에 본질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곧 에너지, 생명, 움직임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생명력이다. 즉, 모든 자연적 존재 활동은 생명력에 의존하며 생명력은 생명 그 자체이다.

생명의 본질은 변화로서 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성장과 소멸의 동적인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생명력은 생명적 욕구에서 비롯되어 생동하는 유기적 움직임의 근원이며 생존 유지를 위한 에너지이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자연 환경과 인간은 외적, 내적으로 관계 맺으며 생명력을 발산한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체와 예술을 암시하고 또한 형태를 이끌어내는 광범위한 자연의 모티브를 포괄하거나, 인체나 풍경의 내적, 외적인 면과

---

4) 이장수. 『노장철학의 자연관』, (서울: 불교 환경 위원회 역, 모색, 1996) p.180

성장, 소멸의 지속적 상태에서의 생물학적 체계를 의미 한다<sup>5)</sup>

자연은 무언의 정연한 질서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자연을 통해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왔다.

자연 대상의 외형 뒤에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곧 에너지, 생명, 움직임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생명력이다.

자연의 생명력은 스스로가 움직이는 힘을 갖추고 있어 모든 생명활동을 주관한다. 이 생명력은 모든 곳에 스며들어가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한다. 한줌의 흙, 풀 한 포기 역시 생명력 있는 존재이다.

“자연은 영원히 변화하며 그 속에는 잠시 동안의 정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머무른다는 관념이 없으며 정적인 모든 것에 저주를 보낸다.”<sup>6)</sup> 라고 한 괴테(J. W. Goethe)의 견해는, 한마디로 생명의 본질은 변화로서 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성장과 소멸의 동적인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력을 갖는 유기적 형태는 생물의 유기적 성장에 필요로 하는 최소에너지와 관련된 형태이며 생태계의 균형, 율동, 조화 등의 통합적인 자연의 생동하는 이미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연 안에는 분자가 무수히 떠다닌다. 이러한 분자적 개념은 아직 생물적인 요소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생명현상에 관한 최소의 형태를 이루는 분자는 가장 기초 단위이다. 이는 생명의 원동력인 동시에 통일성으로 연결되는 기반이 된다.

결국 생명력이란 지속적인 운동과 변화이며 정신과 물질의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이자 지속적인 창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7)</sup>

예술가에게는 자연의 형태를 빌어 내적 감정과 정서적 공감으로 추상화

5) Jack Burnham, Walker Art Center, p.49, 미술사학자.

6) Ernst Fischer, 『예술이란 무엇인가』 김성기 역 (서울; 돌베개, 1984), p.137.

7) 윤혜상, 『생명의 움직임에 대한 표현 연구』 (서울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된 형상은 암시적 존재로 또는 감성지각의 상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결국 자연환경과 그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 내면세계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은 자연 환경이나 현상, 구체적으로 싹트는 나뭇잎에서 생명의 꿈틀 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아주 작은 것에서조차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왔다. 그래서 인간은 그에 대한 내적 표상을 통하여 원초적인 생의 부활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깊은 정신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구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이 생명의 근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원인이며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 (3) 예술과 자연의 관계성

예술은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에 의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산물이라고 한다. 자연을 매개체로 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 활동인 예술은 자연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존재하며 예술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느끼고 탐구하면서 체험한 감정들을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표출해왔다.

예술과 자연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양에서의 예술은 서양에서의 예술보다 더욱 삶의 전체성(全體性)에서 예술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동양에서는 단순히 작품이라는 물질적인 아름다움에 머물지 않고 인간가치의 미적응집으로 까지 나아간다. 서양에서는 과거 오랫동안 예술이라는 말을 ‘기술’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동양에서는 예술을 도(道)와 연관시켜서 ‘예도(藝道)’라고 표현했다. 내향성(內向性)을 지닌 동양예술의 예도(藝道)는 외향성(外向性)을 지닌 서양예술보다 더 강하고 짙은 정신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상이한 예술들을 묶어주는 오직

하나의 개념이 바로 예술이다<sup>8)</sup>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의 이미지를 연결해 주는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자신의 감정을 대신하기 위한 기호인 매개체를 찾게 된다. 제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매개체로 자연을 들 수 있다.

고대 서양에서 고대인들의 자연이란 완전성이었다. 그들은 자연이 질서정연하고 합목적적으로 발전되어 나간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속성이야말로 자연을 최고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었다. 자연이 질서정연하고 합목적적이라면, 바로 그 사실로 인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자연은 아름답다. 또 그런 사실로 인해 자연은 사람들, 특히나 예술가들에게는 하나의 모범이 된다.<sup>9)</sup> 그리스에서 자연을 희랍어인 피시스(physis)라고 하였다. 후에 로마인은 피시스를 나투라(natura)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라틴어는 그 희랍적인 표현의 애매모호성을 이어 받았다. 이 말은 피오마이(생성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 되었으며 본래 '생성(生成)'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이란 '그 자체 안에 운동의 원리를 가진 것'을 말한다.<sup>10)</sup>

이와 같은 그리스의 자연관에는 자연은 조금도 인간에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생명적 자연의 일부로서 그 것에 포괄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자연은 인간에 대하여 이질적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조화하고 포괄시키고 신마저도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처럼 여기서 자연을 인식하다는 것은 근대에서처럼 이 자연을 실험으로 고문을 가하여 자백시켜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은 친밀한 동질자로서 안으로부터 직관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그리스에서는 자연은 인간

8) 수잔 K. 랭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옮김, 고려원문화총서, 1982, p.26

9) W.타타르키비츠, 『미학의 기본개념사』, 손효주 옮김, 미진사, 1997, p.341

10) 엘리자베스 클레망, 『철학사전: 인물들과 개념들』, 이정우 옮김, 동녘출판사, 1996, p250

이나 신까지 포괄하고 살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라고 철학자들은 논하였다.

콜링우드(R. G. Collingwood)는 자연미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누었다.<sup>11)</sup>

먼저 자연미의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인데, 이것은 인간자신과 대조된다. 해와 달, 산과 숲, 바람과 비, 그리고 연못과 고기 등은 인간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의 미에 민감했다.

전원의 오두막이 아름다운 것은 특정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늪 사이를 지나가는 오솔길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언덕에서 만난 목동들의 모습이 감명을 주는 것은 전원 속의 인간생활의 자연과 접합하여 자연이 갖고 있는 성질의 일부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 속에 그대로 융합될 때 자연의 미는 더욱더 부각된다.

자연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예술 활동은 자연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예술에 있어서의 자연은 오랫동안 표현의 대상이 되었고 예술가들은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연에 접근하여 관찰하고 표현하는 노력들을 하였다.

---

11) R. G. Collingwood. *Essays in the Philosophy of Art*, ed. by A. Donagan, Indiana Univ. press, 1964, p97-112

## 2. 미적 대상으로의 꽃

### (1) 꽃의 의미

꽃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 생명의 흔적을 알아보아야한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물을 유지하는 에너지는 빛이며, 빛을 이용하여 직접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물은 오로지 광합성 하는 해조류와 식물뿐이다.

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꽃의 존재는 9000만 년 전으로 추정하며, 200종 이상의 꽃 화석을 발견하였으며 크기는 현존하는 꽃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꽃은 자기 자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에 의존해서, 그 종류로 하여금 자신의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겨 주고 상대방의 꽃가루를 자신의 씨방에 있는 난자에게 가져오도록 한다.

과학자들은 한 송이의 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축과 민감한 촉각에, 적절한 음파에 예민하게 반응함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서로의 도움도 주고받으며 생태적 중요성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인간은 원래 식물과 가장 밀접한 생활을 했으며 식물은 인간생활의 한 부분 이었다. 태초부터 인간은 식물의 아름다움을 보며 거기에서 모든 아름다움의 근본을 이해하고 또 개발하여 오늘날의 여러 가지 예술을 이룩하는 근본으로 살았었다.

다시 말해 자연 안에서 예술가들은 많은 의미를 찾았다.

꽃은 사람의 삶에 정서적인 기쁨과 본성적인 미(美)의 감흥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꽃들의 아름다움을 화가로 하여금 예술작품을 창조하게 한다.

꽃그림이 단순히 장식적인 사물의 형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사회, 문화의 대표적 상징 이미지로서 각 시대마다 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신화와 종교, 모든 예술적 비유, 상징, 알레고리의 원천이듯이 불교에서도 역시 꽃의 관련된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다.

설화에서 보면 석가가 영산회상(靈山會上)<sup>12)</sup>에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내보였을 때 오직 마하가섭(摩訶迦葉)<sup>13)</sup>만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짓자 그에게 불교의 진리를 주었다는 이른바 연화미소를 들 수 있다.<sup>14)</sup>

또한 더러운 곳에서도 맑은 심성을 잃지 않는 것을 일컫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이라는 연꽃의 의미도 있다.

꽃은 예술적 영감과 상징의 무한한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꽃은 인류가 함께 긴 세월을 살아 왔기에, 꽃의 발자취 뒤에는 인류가 같이 걸어 온 일 단면을 볼 수 있으며 꽃이 인류에게 예술적, 문화적, 또는 과학적 부분에 영향을 주므로 꽃을 가리켜 문화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야코프 뵘메(Jakob Böhme)<sup>15)</sup>는 인간과 감응을 할 때 서로간의 에너지가 교환 되거나 혹은 일체화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직접 식물의 내면에 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하여 그에 따른 여러 실

---

12) 영산회상: 조선시대의 불교음악. 석가여래가 영산회에서 설법 할 때 불보살을 노래한 옛 음악 곡조로, 궁중악으로써 세종 때 이루어진 <줄풍류> <대풍류> <평조회상>의 3가지가 전하고 있다.

13) 음을따서 마하가섭: 의역하여 대음광(大飲光), 대구씨(大龜氏)라고도 한다. 인도 왕사성 마하바드라의 거부였던 브라만 미그루다칼파의 아들로써 비팔라 나무 밑에서 출생. 어린 나이로 비야리성(城)의 가비리라는 바라문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12세에 부모를 잃고 세속적인 욕망의 허무함을 깨달아 아내와 함께 출가. 그 후 석가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됨.

14) 월간 미술 1999.4, p.82

15) 야코프 뵘메: 독일 신비주의 자연 철학자(1575~1624) 연금술적 자연 철학과 신비주의적 범신론이 결합된 독특한 사상을 펼쳤다. <서광Aura>의 그의 대표적인 저서.

힘결과 꽃을 들여다보는 순간 꽃과 혼연일체 되어 그것은 '빛을 향해 뻗으려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그 꽃의 단순한 욕망을 함께 나누고 '잎사귀가 자라나는 행복감'도 즐길 수 있다 했다.<sup>16)</sup> 많은 자연 연구자들은 꽃의 반응에 대해서 '식물의 세포와 인간의 신경계상에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꽃은 인간 생활의 정서를 윤택하게 하며 활력소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꽃은 시각적으로만 미적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이 아닌 내면의 상징적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종종 꽃그림이 발견되고 고대인이 꽃을 무덤이나 지석에 남긴 이유는 꽃이 영생과 환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꽃을 자연의 온갖 사물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의 의미로 인식하였다면 동양에서는 외면적인 형태 보다는 정신(精神)의 숨결로 다가오는 것이다. 생태계 파괴와 자연의 수난으로 사물의 시대정신을 알 수 있음은 꽃 한 송이에도 고귀한 의미가 느껴진다.

자연의 수많은 표현 대상 중에 가장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상징되는 것은 아마도 꽃일 것이다. 꽃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바라보는 이의 마음에 감성을 그 어느 물질보다 자극 시킨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꽃에서 무한한 의미와 끝없는 관심의 표현 대상으로 삼는가 보다.

## (2) 꽃의 상징성과 사례

자연의 일부로서 꽃은 성장과 분열, 환생하는 지속적인 생명력을 통해 인간의 도시를 새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태어남·성장·죽음의 순환을 되풀이하는 생명체로서의 꽃은 아름다운

---

16) 피터 톰킨스: 『식물의 정신세계』 황금용(역), 정신세계사 p.44

자연계의 모든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연계의 성장과 소멸, 변화의 유기적 조화를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꽃에는 다양한 상징성(象徴性)이 부여되는데, 꽃의 일반적인 상징으로 아름다움의 상징과 존경과 기원의 상징, 재생으로서의 상징을 들 수 있다.

꽃의 상징은 아름다움에서 출발하여 그로부터 많은 의미가 유추되고 확산되었다. 또한 계절, 시간, 빛의 광선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온갖 꽃은 아름다운 색상과 모양과 향기, 그 봉오리와 개화의 표정, 꽃대와 줄기 및 잎사귀와의 조화 등에서 신비감을 주며, 이는 인간에게 있어 향유(香油)할 수 있는 감각적인 대상인 것이다. 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자신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침없는 생명력으로 밀어 올려 형형색색으로 피어 낸다. 이러한 현상은 꽃의 일생에 있어 '생의 절정기'로 표현되며 인간에게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다가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다. 또한 꽃은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호흡하며 만져봄에 의한 즐거움을 주는 무상(無償)의 순수한 부여물(附與物)이다.

이렇게 하나의 꽃은 단순한 자연으로서 구체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고, 꽃이 담고 있는 과거로부터의 지각(知覺)과 추억의 흔적, 생명의 지속성 그 자체이며, 또한 그로부터 아주 멀리 벗어나 하나의 작은 우주, 실존적 공간으로 다가오는 개체인 것이다.

예술가는 자연에서 알 수 있는 질서와 법칙을 인식하여 자연의 실체와 자신의 내면세계를 결합하여 표현한다 할 수 있겠다.

꽃은 예술의미를 발견하는 하나의 구체적 수단이고 시각적 즐거움과 정신적 위안과, 곡선의 아름다운 조화미를 주고, 인간생활의 정신적 만족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기에 충분하다.

꽃의 완벽한 조화미와 색채는 인간의 정서에 기쁨을 주며 또한 화가들 심상에 자연의 상징으로 승화되어 인간이 미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상승시

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게 한다. 이에 인간은 꽃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연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징에 의미를 갖고 많은 예술가들은 이를 예술의 소재로 즐겨 사용하였다.

서양의 꽃 문화와 우리의 꽃 문화의 차이점은 서양인들은 꽃이 크고 원색적이며 향기가 진한 것을 좋아하며, 우리는 소박하고 윤리성이 담긴 꽃을 좋아한다. 단순히 감각적인 취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꽃의 상징화, 의인화를 통해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꽃을 좋아했다. 군자의 절개, 충절, 도리, 우애 등을 상징하는 꽃이 윤리성이 담긴 꽃이다.

이는 자연의 도를 깨닫고 자연 속에서 영적 세계를 중시하여 우주와 혼연일체가 되기를 바라는 노자(老子), 장자(莊子)의 도가사상(道家思想)과 불교에서 영향 받은 선가사상(禪家思想)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sup>17)</sup>

이와 같이 동양에선 자연의 조화를 배우고 마음의 근원을 자연의 법칙에 융합 시키려 노력하였으며 자연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성(人性)의 조화를 이룬다 하였다.<sup>18)</sup>

‘해어화(解語花)’<sup>19)</sup>라는 말이 있다. ‘말을 이해하는 꽃’으로 이 말은 당나라 현종이 사랑에 푹 빠진 양귀비를 두고 한 말이며, 곧 미인을 비유한 말이다. 후에 ‘기녀’를 상징하는 의미로 바뀌었다. ‘꽃’이란 여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간주된다.

동양에서는 인간이 꽃을 알기 위해 꽃이 되어 버리고, 꽃이라는 대상 속에 들어가 꽃의 신비함을 앎으로서 그 꽃을 통하여 전 우주의 신비를 알아

17) 문길식, ‘동양의 미와 서양의 미’ 제2호. 이화여대 동양학과 1979. p14

18) 임길덕, ‘꽃의 이미지의 시각화’ 이화여대. 학위논문. 1982. p8

19) 해어화: 당나라 현종이 비빈과 궁녀들을 거느리고 연꽃을 구경하다가 양귀비를 가리켜 ‘연꽃의 아름다움도 말을 이해하는 이(양귀비) 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사에서 온 말로 해어지화(解語之花)라 한다. 중국 오대(五代)의 왕인유(王仁裕)가 엮은 <개원천보유사>에 글이 실려 있다.

낸다. 이렇듯 꽃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역사의 문화 예술 창조에 공헌하고 존재되어 왔다.

### (3) 꽃 이미지 표현

꽃은 작가들에게 작품으로 사랑받고 등장하는 소재이다. 꽃이라는 사물 자체를 선택함은 그 우아함과 화려함, 신비감, 청초함, 관능의 미는 꽃이 갖는 영원한 생명의 영속성을 이미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꽃이 내재한 생명감 그 자체의 질서와 꽃의 외면적 형, 색은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는 미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심상을 대변해 주는 소재로 삼기에 적합하다 할 수 있겠다.

많은 작가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림을 그렸을 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작가 자신의 사상과 철학이 반영된다. 작가들이 대부분 표현 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형성되며, 사물의 형태는 작가의 개인적 표현에 따라 변형된다.

그렇다면 현대 미술에서 화가들은 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는가?

현대미술에서도 꽃은 여전히 매력적인 소재로서 많은 작가들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 중 오키프(Georgia O'keeffe)<sup>20</sup>(1887~1986)의 <검은 붓꽃>은 페미니즘의 확산과 함께 초기 여성주의 미술의 대표적 예로 분류 된다. 그녀의 정밀한 사실주의는 사진의 영향을 받은 객관적인 관찰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린 꽃잎은 여성의 신체 구조와 조응하고 있다. 비록 작가가 꽃잎의 이미지를 성과 연관시키는 것에 반대했더라도 그것은 '자연=여성'이란 관념을 불식시킬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의 생명력을 여성의 생식 능력과 연관시키는 온갖 시도들에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해주

20) 오키프: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선 프래리어의 한 부유한 농장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화가가 되기를 희망해서 예술가의 길을 걸었고 한 평생을 화가로서 살았다. 미국의 초고의 여성작가로 평한다.

기에 충분하다.

꽃이란, 연약한 이미지인데 그녀는 어떤 남성적 이미지보다 강한 평화와 사랑이란 큰 힘과 외형 속에 감추어진 현실의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사물의 관찰을 통하여 확대함으로서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작가들의 작품은 예술가의 미의식을 통하여서 시각화하여 이는 다시 주관에 의해 구성 표현되며 이로써 제2의 작품이 창조 된다.

그러므로 꽃의 표현은 작가에게 전달된 자연으로서의 꽃의 질서가 작가의 주관에 의한 변형을 거쳐 형성됨을 말하며 이는 자연적 창조물인 꽃에 내재한 미적인 특정한 법칙에 복종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연을 표현하는데 있어 꽃의 아름다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대로의 범위 내에서 자연과의 합일을 피하였으며 그 결과 작가의 의도가 화면 전체에 걸쳐 확산된다.

또한 꽃을 살펴보고 재현하는 과정들에서 확대 시켜 주로 표현 하였고, 좀 더 세밀한 관찰을 요구하는 이 기법은 그 사물이 화면 위에서 물질적 실체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단순히 꽃을 확대해서 보는 것은 본인의 어릴적 작은 것들의 감정에 의해 크게 확대되어 화면에서 크게 부각시킨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오키프 작품에 있어서의 사물을 확대하여 표현한 것은 내면 세계를 향한 시선이며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회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 (4) 본인과 꽃 - 자연

미술은 여러 가지 상징들을 조직적으로 관련지음으로써 인간의 경험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상징도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와 경험 그 자체와는 구별된다.

흔히 이런 상징이나 조직도 기존 전통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전수 받는 과거의 시각적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자신만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하여 개별 화가들이 독자적으로 전달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오늘날 예술의 주제영역 확대와 환경이 더 다양화되어 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 태도가 강조되어 외부세계 인식뿐 아니라 내면세계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도 꾸준히 해야 한다.

본인 생각엔 미술이란 눈으로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었을 때의 상쾌하고 푸르른 자연의 향기나 가을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꽃이나 잎들을 보며 감각스럽게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들이다. 특히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국에서는 자연과 일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인간다운 삶으로 여기고 자연에 대해 각별한 친근감을 담고 있다

자연이 미술의 근본 소재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지금도 역시 많은 미술가들에 의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예술을 정의하고, 체계를 세우거나,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다. 그렇지만 예술이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험을 고양시킨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우리 중 누군가는 예술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미술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다시 말해 예술 창작의 과정이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개인적인 기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신기하면서도 즐거운 경험이다.

사전적, 통상적 정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찾아볼 수 있으므로 예시를 통해 본인의 미술관을 표현해 본다.

봄 햇살을 가득 품은 새봄의 나뭇잎과 꽃망울을 터트리며 활짝 핀 꽃은 봄날의 싱그러움과 새로운 시작의 의지를 누구나 느낄 것이다. 본인은 그러한 자연들을 나의 시각으로 화폭에 담고 싶음을 강렬하게 느낀다.

가슴속 깊이 있는 욕구표현을 미술을 통해 하게 된다.

미술은 내가 자연에 동화되는 통로인 것이다. 이런 미술 행위를 통해 때로는 자연 속에 지극히 미비한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스스로의 모습에 도취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론 없는 자연과의 대화속에서 자연과 본인을 성장시키고 조화롭게 해주는 미술 행위를 통해 나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

본 작품의 목적은 꽃 그림들에 이러한 채색과 고유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두고 그린 그림에서 일종의 심미적이고 회화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자연의 일부로서 꽃은 성장, 분열 그리고 환생, 다시 말해 태어남, 성장, 죽음의 순환을 되풀이 하는 생명체로서 인간의 모습과도 유사함을 작품 속에 담게 되었다.

어느 봄날에 친구에게 선물 받은 작은 꽃 화분이 있었다. 너무도 아름답게 핀 꽃이 나에게서 아침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날 꽃은 점점 시들어 가고 꽃잎조차 시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짧은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성을 쏟아 부으며 시든 잎들을 떼어버리고 새 생명이 탄생하기만을 기다리며 해가 잘 드는 창가에 두고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들었던 화분에서 새 생명의 맑고 작은 잎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점점 성장을 거듭해 다음해 봄에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자태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화초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살핀다면 그 시간들이 결실로 드러나는 놀라운 경험을 바탕으로 신비감을 가지고 본인의 감성을 자연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 3. 작품의 조형적 전개

립스(T. Lipps, 1851-1914)에 의하면 “예술가는 자연을 묘사할 때 자신의 정신에 의하여 이상화를 계속하여 재생한 미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연미와는 질이나 정도가 다르며, 한층 우수한 미로서 예술미가 성립된다.”<sup>21)</sup> 고 하였다.

예술가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것을 주지하여 볼 때 본인은 자연의 현상으로부터 받은 경험, 즉 미적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형상화 하고자 했다. 형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도(composition), 색채(color), 재료(material) 등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자연을 대상으로 한 풍경이 갖는 회화성을 표현하기 위해 특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자연을 통한 풍경의 특성이 시각적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자연은 항상 변화한다. 자연풍경의 이미지는 변화하는 상태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그 모습을 달리한다. 비쳐지는 햇빛의 양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며, 온도와 습도 등의 미세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바뀌는 자연풍경의 정도는 관찰자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심적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도 하며,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 이가염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하면 “실제 산수에서 구름의 기운과 모습은 사계절이 같지 않다. 봄에는 자욱하고 왕성하게, 겨울에는 성글고 얇게, 겨울에는 어두컴컴하게 보인다. 실제 산수의 안개 낀 모양도 사계절이 같지 않으니 봄 산에서는 답답하게 가리어 미소 짓듯 하고 여름 산은 무르익게 푸르려 흠씬 젖는 듯하고 가을 산은 해맑고 깨끗하여 단장하듯 하며 겨울 산은 차분하여 잠자는 듯하다.”<sup>22)</sup> 라고 하여 자연에 대하여 과학적 관찰방

21) 김인권, 『조형형태론』, (서울;미진사, 1991), p.34

22) 장정란, 『중국 현대산수화 대가·이가염』, (서울; 미술문화, 1994), P.128

식이 아닌 감성적 관찰방식에 의한 치밀한 관찰태도를 구사함으로써 산수의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자연풍경의 변화무쌍한 색채의 이미지를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움과 생동감을 담담하게 표현하려 하였다.

본인은 지금까지 자연을 주로 접하면서 자연의 변화와 힘을 보아왔고 계절의 변화에 마음과 감정까지도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내 감정을 스쳐 지날 때마다 자연과 인간은 뗄 수 없는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소재거리로 보고 있다. 여성들의 욕망은 그 작품을 봄으로써 완전히 충족된다고 주장한다. 본인의 작품 중에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흰색, 보라가 가지는 색채효과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에너지도 충만해 확대된 꽃잎이 부풀었다가 가늘어짐에 따라 형태는 색채와 에너지를 진동하는데 이 에너지는 작품의 구도에 의해 더욱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회화에 있어서 형태의 변형은 작가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화면상의 필연성, 작가의 의도와 목적 하에 확대·축소·단순화의 방법들로 화면의 생동감·대비·강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조형의식을 드러내고 있다.<sup>23)</sup> 그 중에 대상을 보고 관찰하여 형태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사물을 관찰하여 크게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나의 작품 속에서 그 꽃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꽃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표현 방법이 된다.

확대는 현실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재창조 방식이다. 사물의 관찰을 통하여 확대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중요성

---

23) 신강덕, 『꽃-생명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조형미술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P.8

이 상징적인 의미로 작용한다.

작품 속에서 나뭇잎과 꽃은 햇빛 속에 쪽쪽 팔을 뻗으며 한 계절에서 한 계절로 옮기면서 삶을 영위한다. 위로 향한 나뭇잎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즉, 땅이 현실 세계라면 하늘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세계이므로 이것을 이어주는 것이 나무이고 꽃인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작품에서 꽃과 나뭇잎은 작업의 근본적 기초가 되었다.

꽃은 볼수록 신비하다. 아마 인간의 심리가 그러하리라고 본다. 꽃은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인간사를 연상해볼 수 있다. 나의 작업에서의 꽃은 마치 인간을 의인화하여 초상화를 그려 놓은 듯 보이고 자연의 섭리이며, 인간의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꽃은 외롭기도 하며 강하기도 하고, 아름답거나 슬프기도 하다. 자연물인 꽃을 통해 인간의 형상이 아닌 식물로서, 인간의 여러 모습들과 일상들을 대변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관객은 나의 그림을 보고 나만의 색깔과 일관성을 알아 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물음에 대해 명료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나의 작품들은 자연속의 일상과 자연의 구체적 일부 다시 말해 꽃을 소재로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나의 작품을 보는 이들은 그림 속의 꽃들을 통해 “색이 구체적이다” 또는 “사실성이 부족하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저런 꽃은 본적이 없는데” 하며 소재의 존재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그때 나는 진지하게 그들의 언급에 귀 기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작품을 보아주고 생각을 표현해주는 관람객이 있기에 나의 존재성은 의의를 찾고 작품 세계는 깊이를 더 할 수 있으며 내 작품의 관람객이 있음은 작품 활동의 집중적 표현에 대한 창작 활동만큼이나 나를 숨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갑갑하고 메마른 도시 속에서 꿈과 자연을 결합한 나 나뭇대로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신비를 보여주고 싶다.

#### 4. 작품분석

일상의 풍경은 현실감이 있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꾸밈없이 전달해야만 일상 속의 모습을 거부감 없이 느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자는 자연을 바라봄에 있어서 자연으로부터 꽃을 소재로 선정하여 그 생태구조에서 주는 이미지와 재현적 화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근접시점과 정밀화의 양식으로 작품을 표현 하였다.

또한 자연물인 꽃을 통해 인간의 형상이 아닌 식물로서의 인간의 여러 모습과 일상들을 대변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인 꽃의 형상을 표현하기에 알맞을 것이다.



<작품 1> Me in Nature

162.2 × 130.3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작품 1>은 보다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100호 크기의 큰 화면을 사용하였으며 화면을 확대해 보이기 위해 꽃의 형태를 잘려나가게 함으로써 공간이 더욱 확대되어 보이게 하였다. 전체 화면 바탕은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수채화적인 맑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꽃의 느낌에서 오는 밝은 색은 단조로운 색이 아닌 변화가 있는 신비스러운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은 추상적인 면과 구상적인 면을 동시에 한 화면에 담게 되었으며 작품의 뒷 배경인 추상적 느낌은 어릴 적부터 느껴오며 경험하고 회상한 추억과 무채색의 느낌으로 심증나지 않는 차분한 색들을 사용하였다. 이런 느낌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뿌연 느낌으로 뿌리고 흘리며 시간을 두고 중첩해 가는 과정을 겪었다.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꽃과 꽃잎들은 더욱더 현실감 있게 구상적 표현을 위해 배치하였다.

그리고 현실과 과거의 시간 속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경들은 은색 펄과 화이트가 들어간 색들로 차분함을 표현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일상 속에서 보아온 꽃의 형상 중에서 주제에 위치한 꽃은 하나가 아닌 둘로 묶어 인간으로 비유해 외롭지 않은 행복한 부부나 연인으로 비유하고 싶었으며 주변에 있는 꽃들은 홀로 서있으며 각자의 나름대로 다른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꽃잎들의 일정하지 않은 자유분방하고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을 주기 위해 각기 다른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2〉 Me in Nature

( 24 × 30cm ) × 2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작품 2〉는 〈작품 1〉과 같은 방법으로 배경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연작임을 알 수 있지만 〈작품 1〉보다 먼저 그려진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꽃이 시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생명력을 인간과 비유하고 싶었으며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상태의 형태로 형상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게끔 작품 표현에 있어서 사각의 틀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거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양쪽에 위치하는 주제들이 서로 같은 형상을 하고 인간의 모습과 같이 세월의 흔적을 거울을 통해 보듯 담고 있다.

이 작품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아크릴, 유화, 금·은색 펄 등이 사용되었고 오른쪽의 형상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긁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작품 3〉 Me in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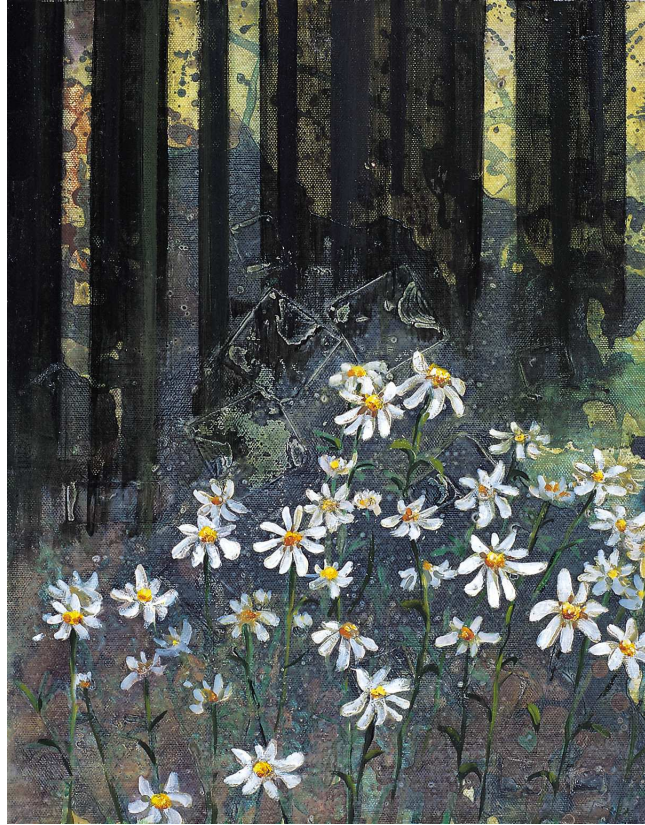
(22 × 16cm) × 7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작품 3〉은 작은 1호 캔버스에 배경처리를 동시에 하였으며 마르고 뿌리며 원하는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 신중함을 기울였다. 또한 생성과 소멸이 순환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대자연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눈을 감으면 느껴지는 감정과 형상 등을 시리즈로 작품화 시켰다. 그런데 작품을 보고 관찰자들은 꽃과 잎들이 조금은 여유 없어 보이는 가득찬 꽃은 화면을 정신없이 보이게 하는 답답함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꽃의 화려함과 생명감을 표현하려는 본인의 의도된 표현이다. 그리고 한 작품씩 떨어뜨려 놓은 느낌과 모아 놓은 것은 확연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노랑, 빨강, 초록, 파랑과 같은 유채색과 배경에서 주는 무채색의 조화는 본인이 부각시키고자하는 소재 표현에 알맞다.



〈작품 4〉 Me in Nature

130.3 × 89.4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작품 5〉 Me in Nature

40.9 × 31.8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작품 4〉, 〈작품 5〉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숲 속의 작은 꽃들을 확대 시켜 표현하였다. 본인이 아주 작고 어릴 적 보았던 꽃을 회상하였으며 화면의 가장 윗부분에 세로로 길고 짧은 선들은 눈을 감았다 떴을 때의 눈에 비춰진 빛과 어둠을 표현 하였고 〈작품 4〉에서 화면의 아래쪽 동글동글한 느낌은 과거를 투영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작품 5〉는 〈작품 4〉와 달리 무채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여 저녁 무렵을 연상하게 한다.



〈작품 6〉 Me in Nature

90.9 × 72.7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작품 7〉 Me in Nature

103.5 × 98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작품 8〉 Me in Nature

90.9 × 72.7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작품 6>, <작품 7>, <작품 8>은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가 온 뒤 빛을 받으며 갓 피어난 꽃과 풀들은 ‘희망’과도 같은 존재이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며 세상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의 신비함은 봄 기운과 함께 넘쳐나듯 마치 본인이 그 자연 앞에 서 있는 듯하다. 그리고 중앙의 꽃술이 또 다른 꽃 봉우리를 연상하게 하는데 그 주위의 수술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그 표정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며 나를 쳐다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목소리로 작품을 표현해보면 작품의 주된 배경은 뿌옇게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밝고 건강한 생활 이미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작품 중심의 꽃 색 배합은 동심의 순수성과 내면의 긍정적 깊이를 표현하고자 함이다.

나의 작품속의 꽃은 모두 정면과 측면을 바라보며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작품속의 꽃들은 본인의 심상속의 꽃이며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된 구도이다.

특히 <작품 7>은 빨강색과 노란색으로 그려져 꽃의 따뜻하고 정열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품 9〉 Me in Nature

(53 × 45.5cm) × 2 Acrylic and oil on canvas 2005

〈작품 9〉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두 작품을 한데 모아 작품화 시켰다. 그 이유는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고, 각각 다른 색의 의미는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현재를 의미한다.

또한 앞의 작품들과 같은 연작이고 생명성과 시간성을 나타낸다.

### Ⅲ. 결 론

나의 작품은 자연, 그 중에서도 꽃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다. 사람은 식물에서 다른 부분보다 꽃을 보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에는 꽃마다 꽃잎과 암술, 수술이 붙어 있는 모습이 제각기이고, 개화기 중에도 그 모습은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것은 사람사이의 관계와 닮았다고 여겨졌다.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들을 품고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며 내면을 변화시킨다. 자연은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새롭게 움직인다. 자연의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상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상상속의 미래를 자유롭게 오가며 변화하는 감성의 이미지이다

본 연구자는 내면에 의해 추출된 이러한 이미지가 재료, 작업방식, 작업과정에서 파생되는 무의식의 우연성 등과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가에 대한 탐색의 과정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인간의 내면과 자연에 숨겨진 생명력의 신비로움은 인간들에게 가시화될 수 없는 세계이지만 그 영역에 대한 의문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작업을 하는 본인 자신의 본능이다.

예술의 목적은 논리적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가슴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눈은 이성의 논리가 아닌 예술의 논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작가 자신에게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변화하는 오늘날 미술의 다양함 속에서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진정한

자아 추구를 위해 정진하려하며, 내면세계와 외면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더 독창적이고 자율적 예술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작품 활동의 반복이라는 행위는 축적으로 인한 다층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진 작업의 밀도감을 높이는 중요한 표현방법이 된다. 반복적 작업에 의한 흔적의 확산이 자연과 나, 그리고 화면이 합일을 이룰 때 작업은 완성된다. 반복적 작업을 위해서는 물성 재료에 의한 작업이 요구되며 이때 행위성은 자연스럽게 작업과정에 스며들게 되고, 이 또한 동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작품 제작에 있어 지금까지 연구해 온 자연 이미지들을 선, 면, 형태, 색채 등의 조형언어를 통하여 화면에 새로운 생명력과 의미를 지닌 개별적 회화로 심도 있게 표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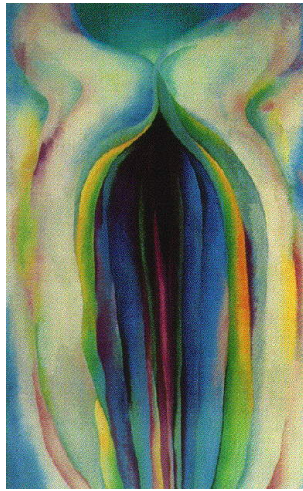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표현양식과 조형미 안에는 항상 변하지 않고 자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정신이며 예술 작품의 본질이다. 다가올 미래의 예술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자문해 본다.

## 참 고 문 헌

- 존. 버거, 『이미지』 초판발행, 1960
- Lewis Mumford, “유토피아의 계보”, 1992,  
“도시의 문화”, 1938  
“역사의 도시 - 내일의 도시”, 1961
- 이강수, “노장철학의 자연관”, 서울:불교 환경위원회 역, 모색, 1996
- Ernst Fischer, “예술이란 무엇인가”, 김성기역(서울:돌베개), 1984
- 윤혜상, “생명의 움직임에 대한 표현 연구”, 서울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병식, “동양회화의 미학”, 서울:동문선, 1994
- 수잔 K. 랭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옮김, 고려원문화총서, 1982
- W. 타타르키비츠, 『미학의 기본개념사』, 손효주 옮김, 미진사, 1997
- 엘리자베스 클래망, 『철학사전: 인물들과 개념들』, 이정우 옮김, 동녘출판사, 1996
- R. G. Collinwood. “Essays in the Philosophy of Art”, ed. by A. Donagan, Indiana Univ. press, 1964
- 피터 톱킨스: 『식물의 정신세계』 황금용(역), 정신세계사
- 문길식, ‘동양의 미와 서양의 미’ 제2호. 이화여대 동양화과 1979
- 임길덕, ‘꽃의 이미지의 시각화’ 이화여대. 학위논문. 1982
- 김인권, 『조형형태론』, (서울:미진사, 1991)
- 장정란, 『중국 현대산수화 대가·이가염』, (서울: 미술문화, 1994)
- 신강덕, 『꽃-생명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조형미술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 김향안,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 도서 출판사 우석, 1989
- 김환기, 『편편상』, 사상계, 1961
- 김환기, 『이조 향아리』, 문학사상, 1976
- 김지영, “자연이미지의 상징성과 심상표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 김여선, “꽃을 모티브로 한 옷칠 장식거울 개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05
- 김선혜, “자연 이미지를 통한 생명성의 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2005
- 주혜윤, “자연을 통한 내적 공간 표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석사 학위 청구논문, 2005
- 민보영, “동양의 자연관에 나타난 나무이미지의 추상적 표현 연구”,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참 고 도 판



〈도판 1〉 오키프  
Grey\_Line\_with\_blackblueandyellow,  
388×630cm  
1923



〈도판 2〉 오키프  
poppies, 226×275cm  
1950



〈도판 3〉 오키프  
Blue-and-Green-Music, 618×750cm  
1919



〈도판 4〉 오키프  
white\_iris, 462×550cm  
1926

## **ABSTRACT**

### **Expression of Life Force with Flower Images**

**Sung, Chae-Won**

**The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contents and expression types of my works displayed by the Private Exhibition to Evaluate Works for a Master's Degree (at the Gaea Gallery from April 6 through 12, 2005) on the subject of "Me in Nature."

Nature has long been the origin of life, the target of human beings' continuous interest, and the base of life; its mysteriousness and solemnity may cause human beings to have a desire to express natural image. Human beings lead a life in the natural order, exist as mutually-organic beings together with nature, and use internally-vivid senses or imagination to create a work of art. In this context, I tried to arouse the emotion of life force with flowers, which belong to nature, and express nature that seems to have strong internal association with human life. In other words, I intended to find an opportunity to reflect the appearance of human life in nature through the medium of flowers.

For this purpose, I expressed a mix of objective reproduction of flowers seen in nature and abstraction using colors and used magnification in expressing flowers. And I took examples of works by female artists, Georgia O'keeffe, to see the world of flower expressions and also examined images and colors to make a formative analysis of my works.

An attempt to make a new interpretation of flower images through natural objects will extend the expression area infinitely and art will begin in our mind for the time to come.